

섬진강 유역 수질보전 공동 대응

임실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수질보전 방안 집중 논의

임실군 등 섬진강 유역의 자치단체가 섬진강의 수질보전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8일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회장 심 민 군수)는 임실군청에서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와 3개 특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정기총회를 갖고, 섬진강 수질보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예산결산 및 2018년도 사업계획 승인 등으로 섬진강 문화유적지 탐방과 수질보전 워크숍, 토종어류 방류 등 시·군 자율사업 등을 협의했으며,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현안 문제 도출과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섬진강 수계는 섬진강댐과 주암댐 등 여러 댐이 건설되면서 하천 유지

수량이 급격히 줄어 하류지역의 염해 뿐만 아니라 수생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이 부족함에 따라 섬진강 수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총회에서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조사'와 '섬진강댐 방류량 증대'를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협의회의 공동 대응을 통해 섬진강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데 주력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난개발에 의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토종어류 보호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생태, 문화, 역사적으로 매

우 중요한 섬진강을 보호하고 직면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섬진강의 상류에 위치한 임실군은 지난 몇 년간 200억원 규모의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심 민 군수는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섬진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상호 관계기관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며 "회원기관 모두가 적극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춘향골 복숭아 시설 재배포장 '복사꽃 만개'

전국 최고품질로 알려져 있는 남원 춘향골 복숭아가 시설 재배포장(인공습 농가)에서 계속된 확산을 이기고 복사꽃을 만개시키며 풍년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시설 복사꽃은 계속된 추위로 예년기준 2~4일 늦게 만개 중이다. 시설복숭아 재배는 이른 재배를 목적으로 하우스에서 재배하며 가운을 하거나 보온 등으로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남원지역에서는 1월 상순에 가운을 시작하며 노지재배보다 40일 빠른 2월 하순에 복사꽃이 만개 5월 하순에 출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복숭아 시설 재배는 노지와 재배방식을 달리하므로 시기별로 적절한 온도관리, 수분관리 및 인공수분 등 고도의 재배기술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설 및 기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며 재배농가는 시설재배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므로 새롭게 시설복숭아를 시작하려는 농가에게는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런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고 품질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며 병해충 억제와 수확기를 조절하여 빠르게 출하가 가능하므로 농가 소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복숭아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요구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남원시 복숭아는 26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그 중 30여 농가(9.4ha)가 시설재배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 아리

순창군, 리모델링 실내수영장 인기

순창군이 지난해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완료한 순창군 실내수영장이 군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2월말 현재 실내수영장 회원수가 41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말 기준 309명에서 110명이 증가한 수치다.

인기의 가장 큰 원인은 군이 지난해 2억 4000만원을 투자해 실내수영장 시설을 대폭 개선한 점이 꼽힌다. 실제 회원 가입수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인 1월 초부터 급격히 늘고 있다. 군은 체력 단련실 확장 및 운동기구 보강, 풀장 진출입로 신규 개설, 공기순환장치 설치, 탈의실 보수 및 옷장문 교체 등의 리모델링을 완료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호응

순창군이 친환경농산물의 영양학적 이점은 물론 정서적 이점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육을 진행해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친환경농업관련 교육은 지난 28일 친환경연구센터에서 농업인과 성장기 자녀를 둔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교육은 전북심리검사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김기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영양소와 사회성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제공, 친환경농산물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성료

관광객 몰려 지역경제 활기



2018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가 5일간의 열전을 진행한 가운데 경기내내 골목상권에 훈풍이 불며 지역경제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군은 순창공설운동장과 유등면섬진강체육공원 등 9개 구장에서 지난 23일 시작한 2018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27일 5일간의 열전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보다 22개 팀이 더 많은 52개 시군구에서 98개팀 15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선수단이 참여해 대성공을 거뒀다. 임원, 심판진, 학부모 등을 합하면 2,000여명 규모가 순창에서 머물며 192경기를 치른 것.

이로 인해 관광비수기인 순창 골목상권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대규모 야구단의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 읍내에는 물론 6개 읍면의 민박과 펜션 등 숙박업소에도 유소년야구대회 관련 손님들이 투숙해 경기기간 중 순창에서는 숙박업소 구하기가 힘든 모습이 연출됐다. 식당, 편의점 등 예도 사람이 몰리면서 골목상권이 관광 비수기가 무색할

2018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가 5일간의 열전을 진행한 가운데 경기내내 골목상권에 훈풍이 불며 지역경제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할 만큼 활기가 돌았다.

실제 경기장에서 황숙주군수를 만난 순창민박연합회 김종길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로 관내 대부분의 민박과 펜션에 선수단들이 예약을 했다"며 "매년 야구대회를 여러번 유치해 왔으면 좋겠다"고 건의 할 정도로 이번 야구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로 3번째인 유소년 야구대회에 지난해 보다 수도권권 지역 야구팀이 더 많이 참석했

남원시 수도사업 운영·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환경부 주관으로 평가한 2017년도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8일 환경부 대강당에서 시상 및 2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명예로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남원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2017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수상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발표한 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는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경영개선,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것으로 3개분야 14개 항목(28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되었으며 1차로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평가단이 서류·현장평가를 실시하고, 2차 환경부 평가로 자체개선 노력 및 정책수행 등 2개의 항목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평가 하였으며 평가결과 남원시는 Ⅲ그룹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수상되었다.

남원시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정수장 시설 등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위한 시민제일주의를 실천한 점, 깨끗한 물 공급으로 시민건강과 행복향상이라는 경영전략으로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해 온 점, 우수성을 높이고 단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점, 대국민 홍보 및 수질 관리가 우수한 점,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개선의 노력 등을 인정받아 맺은 결실하기에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주 남원시장은 "3년연속 우수기관이라는 성과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대해 만족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항상 믿고 마실 수 있는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공모형사업으로, 남원시는 2013년부터 6년 연속 사업이 선정돼 그동안 받은 사업비가 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 그리고 나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시간에 직접 강의할 전문강사 양성 사업으로 6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남원시 홈페이지나 경제과로 신청·문의하면 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